



예거 르쿨트르와 아만다 사이프리트의

로맨틱한 시즌으로의 초대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에 빛나는 여배우 아만다 사이프리트가 예거 르쿨트르를 위한 우아한 사진 촬영으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사진 촬영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 사진작가 알리크(Alique)와 함께 진행했다. 2019년부터 그랑 메종의 프렌즈로 활동한 그녀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빛나는 마더오브펠 다이얼, 섬세한 낮/밤 인디케이터로 로맨스의 기쁨과 신비를 우아하게 불러일으키는 랑데부 데즐링 나잇 & 데이 타임피스를 착용했다.

아만다는 처음 예거 르쿨트르를 만났을 때 아름다움과 낭만적인 매력이 담긴 여성스러운 컴플리케이션에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저는 항상 밤하늘에 매료되었어요. 무언가 신비롭고 로맨틱함이 있거든요. 워치메이킹 노하우에 이러한 정교함을 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랑데부 데즐링의 마더오브펠 다이얼에는 황금빛 별이 흩뿌려진 무지갯빛 디스크에 낮/밤 디스플레이가 설정되어 있다.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낮이 밤으로 바뀌면 볼륨감 있는 광선으로 장식된 태양 대신 금빛 초승달이 천천히 나온다.

아만다는 항상 라운드 위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랑데부 데즐링의 다이아몬드는 라운드 케이스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 올립니다. 그 광채에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두 줄의 다이아몬드가 다이얼을 둘러싸고, 외부 링을 36 개의 스톤으로 세팅한 방식 덕분에 가볍게 하늘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순금의 클로가 다이아몬드를 높이 받치고 있어 위치 케이스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로맨스에 보내는 진심어린 찬가와도 같은 랑데부 데즐링 나잇 & 데이는 영원한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만다 사이프리트 소개

미국 여배우 아만다 사이프리트는 십대에 연속극으로 경력을 시작해 퀸카로 살아남는 법(Mean Girls, 2004)과 HBO 시리즈 빅 러브(Big Love)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메릴 스트립과 피어스 브로스넌이 공동 주연을 맡은 맘마 미아!(Mamma Mia!, 2008)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 외에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2012)로 주목을 끌었다. 2021 년 그녀는 맨크(Mank)에서 매리언 데이비스를 연기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그녀의 최신 영화인 어 마우스풀 오브 에어(A Mouthful of Air)는 2021 년 11 월에 개봉했다. 아만다는 뉴욕 북부의 한 농장에서 남편 토머스 새도스키(Thomas Sadoski)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2019 년 1 월부터 예거 르쿨트르의 프렌즈로 활동 중이다.

랑데부 컬렉션 소개

2012 년에 출시된 랑데부 라인은 빠르게 예거 르쿨트르 여성 컬렉션의 중심이 되었다. 출시 당시 이 위치는 우수한 기계식 무브먼트와 흥미로운 컴플리케이션을 우아한 디자인과 세련된 디테일, 자신감 넘치는 36mm 직경의 다이얼과 결합하여 여성용 위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오리지널 모델에서 컬렉션의 이름이 유래했으며, 그 다이얼 둘레에는 약속(프랑스어로 랑데부) 시간을 설정하는 작은 별이 있다. 그 이후로 다양한 컴플리케이션과 미학적 해석이 이 라인에 추가되었다.

예거 르쿨트르: 1833 년부터 이어온 파인 위치메이킹의 명가

평온한 발레드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는 구성원들 간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기술이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 집약되어 위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수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위치를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은 위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만들었다.